

동아시아학술원 20년의 고전학 연구 성과

韓榮奎*

I. 머리말	IV. 學際間 시각을 갖춘 공동 학술저서의 출간
II. 영인, 번역, DB구축을 통한 고전 자료의 지속적 축적	V. 맺음말
III. 『대동문화연구』 특집을 통한 학술 의제의 주도	

• 국문초록

2000년 3월,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의 설립과 출범은 한국 근대 대학의 역사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그것은 분과 학문으로 고착된 한국 대학제도의 오래된 장벽을 허물고 ‘동아시아’라는 21세기의 새로운 화두를 대학이라는 제도 내부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학술원의 연구 성과 가운데 주로 고전학, 고전문학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영인본, 자료집, 학술회의, 학술논문, 학술저서, 연구과제 수주 등의 사안을 정리하며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아울러 향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간단한 제언을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는 자제하고, 지난 업적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는데 주력했다. 동아시아학술원이 지난 20년 동안 고전학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임형택, 김시업, 신승운, 진재교, 안대회, 김영진 등 문헌과 고전에 밝은 연구자들이 리더십과 협업을 발휘한 결과였다. 또한 학술원이 변화되는 시대 현실에 맞춰 고전학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타 대학과 견주어 어떠한 특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고전학 분야에서 동아시아학술원이 영인한 자료, 출판한 연구서, 구축한 DB 등은 지난 20년간의 지난한 노력의 결과로서 향후 지속적인 확대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발전이 요청된다.

주제어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동아시아학, 한국학, 고전학,
『대동문화연구』

I. 머리말

2000년 3월,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의 설립과 출범은 한국 근대 대학의 역사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이라 칭할 만하다. 그것은 분과 학문으로 고착된 한국 대학제도의 오래된 장벽을 허물고 ‘동아시아’라는 21세기의 새로운 화두를 대학이라는 제도 내부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21세기를 맞아 성균관대가 동아시아학술원을 새롭게 출범한 시도는 다른 대학의 한국학 및 동양학 연구소가 보여준 변화에 견주어 매우 획기적인 전환이었다. 즉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은 ‘민족문화’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연세대의 경우는 동방학연구소에서 국학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서울대는 규장각에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으로 편제를 바꾸며 새로이 출발하였다. 정부 출연의 주요 학술연구기관 역시 21세기를 맞아 새롭게 전열을 정비하였다. 국고문헌의 국역을 오랫동안 담당해 왔던 민족문화추진회는 한국고전번역원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정신문화연구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름을 개칭하였고, 또 경북 안동에는 국학진흥원이 신설되었다. 요컨대 21세기를 맞아 한국학 및 동양학을 연구하는 주요 연구기관은 여전히 ‘민족문화’ ‘국학’ ‘한국학’ 또는 ‘동양학’이라는 기존의 틀을 유지했던 반면에 성균관대는 ‘동아시아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동아시아학술원의 기획은 두 가지 면에서 기존의 대학 연구기관과 차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지녔다. 우선, 학술원이 제시한 발전계획은 21세기의 학술계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그 학문 방법에서 통섭적·학제적 방식을 선도적으로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교육과 연구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한국의 학계에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대학이 온존시켜 온 학과별 체제에서 오로지 교육에 중심을 두던 것을 획기적으로 재구조화하여, 교육과 연구를 동시에 추구하고 그것을 제도화하는 국내 최초의 혁신적 시도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의 창신 및 연구·교육의 통합적 추구가 지니는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는 진재교·오시택의 세밀한 고찰이 참고된다.¹⁾

1) 진재교, 「동아시아학으로의 연구지평 확대와 연구방법론의 창신」, 『대동문화연구원 50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110~133면; 진재교, 「동아시아학술원의 연구·교육의 통합 모델과 그 성과」, 동아시아학술원 20년사 집필 발표회 요지집, 2020.10.16; 오시택, 「한국 대학의 변화와 동아시아학술원 20년의 성과」, 동아시아학술원 20년사 집필 발표회 요지집, 2020.10.16.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학술원의 여러 성과 가운데 주로 고전학, 고전문학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영인본, 자료집, 학술회의, 학술논문, 학술저서, 연구과제 수주 등의 사안을 정리하며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아울러 향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간단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Ⅱ. 영인, 번역, DB구축을 통한 고전 자료의 지속적 축적

동아시아학술원은 과거 대동문화연구원의 한국학 연구 성과를 흡수 통합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고전(문)학 자료의 축적과 연구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00년 학술원 출범 이후로도 이러한 국고문헌의 영인은 간단없이 지속되어,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그 대표적 성과는 다음과 같다.

- 『近畿實學淵源諸賢集』, 6책, 2002
- 『增補 明南樓叢書』, 5책, 2002
- 『沈大允全集』, 3책, 2005
- 『疆山全書』, 1책, 2005
- 『邵南遺稿』, 1책, 2006
- 『茶山學團文獻集成』, 9책, 2008
- 『正祖御札帖』, 2책, 2009
- 『南譜』, 3책, 2016
- 『北譜』, 1책, 2016
- 『菱洋詩集』, 2책, 2017
- 『李建昌全集』, 2책, 2018
- 『朴永輔全集』, 4책, 2019
- 『泮林英華』, 1책, 2019

『近畿實學淵源諸賢集』을 비롯하여 『茶山學團文獻集成』 등 2008년까지 간행된 국고문헌의 영인 사업의 성과와 의의에 대해서는 이미 대동문화연구원 50년사에서 상세하게 검토된 바 있다.²⁾ 동아시아학술원이 출간한 이들 영인본은 모두 엄격한

문헌 비판을 통해 원자료를 선별하고, 거기에 학술적인 성격의 해제를 상세히 붙이는 것이 오래된 전통이었다. 이 점에서 성균관대 고전학 연구의 역량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의 고전 문헌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열정을 지녔던 이우성, 임형택, 김시업, 김명호, 진재교, 안대회, 김영진 교수 등이 학술원과 대동문화연구원에 책임자 및 공동연구자로서 기획과 운영을 주도한 결과였다. 즉 학술원이 펴낸 각종 고전자료는 성균관대 고전학 전공자의 연구 역량을 상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 영인본 가운데, 2009년에 출간된 『正祖御札帖』은 한국 지성계에 하나의 충격적인 뉴스로 받아들여졌다. “200년만에 공개되는 정조의 비밀편지 297통, 이제부터 정조의 역사는 다시 씌어진다!” “정조시대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등등의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졌다. 이 어찰첩에는 정조(1752~1800) 임금의 노론 영수 沈煥之(1730~1802)에게 4년간 보낸 편지 297통이 담겼다. 이를 통해 정조의 인간적인 면모, 그 당시의 정치 상황과 정치 행태 및 현안, 정조와 신하들과의 관계 등을 새롭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특히 그동안 문예군주로 알려진 정조 임금의 민낯이 가감없이 드러나 있었다. 관찬 사료보다 폭넓은 시야로 정조 치세에서 세도정치의 시대로 이행하는 19세기 전후의 정치사를 해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정조시대를 보다 선명하게 우리 앞에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심중했다. 동아시아학술원의 안대회·진재교 교수는 2009년 2월 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이 어찰첩이 전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발표하여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이후 이 어찰첩을 상세히 분석한 연구서로 안대회의 『정조의 비밀편지-국왕의 고뇌와 통치의 기술』(문학동네, 2010)과 『정조의 비밀 어찰, 정조가 그의 시대를 말하다』(김문식·안대회·유봉학 외, 푸른역사, 2011)가 연속적으로 출간되었다.

학술원의 고전 영인 사업은 이서구, 윤동규, 심대운 등 조선후기의 핵심 문인들의 시문집을 全集 형태로 영인한 성과 뿐 아니라, 보다 새로운 인물연구 자료로서 黨派譜를 새롭게 주목하며 연구 지평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2016년에 접어들어 한국한문학 전공의 김영진 교수의 주도로 『南譜』와 『北譜』를 연속해 영인 출간하였다. 『南譜』는

2) 이영호·한영규, 「출간사업의 성과와 의미」, 『대동문화연구원 50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135~158면.

南人 名家의 주요 가계를 수록한 종합적 성격의 黨派譜로, 남방[午]이라는 의미에서 ‘午譜’라고도 불렸다. 조선시대의 南人은 西人이 주도한 인조반정 이후로는 소수파 야당의 처지가 되었고, 경신환국(1680)과 갑술환국(1694)을 거치며 정치적 쇠퇴를 거듭하면서도 여전히 西人(老論)의 견제세력으로서 정치사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학문적으로는 退溪 李滉의 학통을 계승하였고, 지역적으로는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과 서울·경기 지역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영남 지역의 남인을 嶺南 南人, 서울·경기 지역의 남인을 近畿南人이라 칭했다. 조선후기의 남인은 특히 성호 이익을 위시하여 다산 정약용 등의 학문적 거장을 배출하며, 특히 실학 연구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또한 당시로서는 새로운 사상 조류라 할 천주교에 가장 기민하게 반응한 당파라는 점에서 사상사 차원에서도 주목된다. 학술원은 성호 이익의 후예를 중심으로 한 이병휴-이가환-이중환 등이 남긴 전적을 망라하여 『近畿實學淵源諸賢集』 6책을 2002년에 출간한 이래, 다시 『南譜』를 간행하여 남인 학맥의 연원과 인적 네트워크 양상을 조리있게 파악할 기초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소수파 北人의 당파보인 『北譜』를 연속적으로 영인하였다. 북인의 존재는 조선후기 정치사, 당쟁사 연구에도 매우 중요하거나 특히 문학적 성취가 뚜렷한 강세황 등의 소북파 문학 연구에도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소북 계열의 인물들은 우수한 문학을 남겼지만 그동안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였는데, 이 『北譜』의 발간으로 그 인적 계보의 파악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朴宗善(1759~1819)의 『菱洋詩集』 2책 역시 조선후기 한시 연구를 심화시킬 새로운 자료이다. 박종선은 박지원의 삼종형 朴明源의 서자로서, 걸출한 시인으로 평가된다. 박종선은 詩體를 폭넓게 구사하며 詩風의 편폭도 매우 넓다. 청신한 절구, 교묘한 율시, 호방한 長歌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가의 면모를 보인다. 특히 박종선은 규장각 검서관을 지내며 이덕무·박제가·서이수 등의 문인들과 깊은 교유를 맺었기에, 이 시기 庶派 지식인의 동향과 관련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2018년 『李建昌全集』 2책의 영인 출간은 이 분야 전공자인 이희목, 안대회 교수의 주도로 오랜 시일에 걸쳐 면밀히 준비된 성과이다. 이희목은 2005년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이건창 문학 연구』(대동문화연구총서 24, 2005)를 출간한 바 있다. 고종시대의 대표가는 거장 이건창의 저술로는 이미 『명미당집』과 『당의통략』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밖의 시집 초고나 家藏 문서 등은 국사편찬위원회 등 여러 곳에 분산되

어 있어, 열람이 용이하지 않았다. 동아시아학술원은 이들 미정고를 세밀히 조사하여, 지금까지 출간된 적이 없고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새 자료들을 정리 편차하여 ‘全集’이라는 이름으로 묶었다. 이진창과 같은 거장의 시문들이 사후에 정식으로 편찬되지 못한 것은 조선말기 학계와 문단이 문헌의 정리 작업을 찬찬히 할 수 없었던 격동과 혼란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 전집의 영인 출판을 계기로 한말의 거장인 이진창의 학문과 정치, 문학과 교유를 깊이 이해하고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된 셈이다.

19세기 중반에 활동한 저명한 시인 朴永輔(1808~1872)는 申緯의 으뜸가는 제자로 인정받았던 인물인데, 그동안 그의 문집이 공간되지 못한 상태였다. 학술원 산하 대동문화연구원에서는 박영보의 현존 저작을 두루 수집하고 편집하여 『朴永輔全集』 4책(2019)을 영인 출판하였다. 이 시문집은 그의 직계 후손 박용기 선생이 보관해 오던 家藏 유일본이다. 문집의 형태는 대체로 중국 종이에 중국본 형식을 취하여 이 시기 경화세족 문인의 취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전집의 발간을 계기로 박영보와 19세기의 문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19세기 전반 성균관에 근무하던 관료 沈啓錫(1782~1837)이 편집한 『泮林英華』은 성균관대의 학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할 만한 시집이다. 이는 18세기 후반 성균관 주변의 泮村 주민들의 시집으로, 1820년에 심계석이 62인의 시 186수를 수록한 매우 희귀한 문헌이다. 조선의 유일한 대학촌인 반촌은 현재의 명륜동 일대를 말하며, 그곳의 주민인 泮人은 성균관 유생의 학업을 지원해 주던 특수한 계층이었다. 이 시집은 성균관과 대학촌의 관계 및 유구한 역사를 보여준다. 동아시아학술원 원장을 역임한 임형택 교수가 소장한 유일본을 저본으로 하여, 원본과 똑같이 전통적인 동장본으로 제작하여 한지에 영인하였다.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헌으로서 그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동아시아학술원은 2000년 3월 출범 이래, 다양한 한국학 및 동아시아 고전학 자료를 영인·정리하여 출간을 지속시켜 왔다. 고전 문헌의 영인 출판은 대동문화연구원이 1958년 출범 이래 가장 힘을 기울여 추진해 온 분야이다. 대동문화연구원은 지난 세기에 사서삼경을 비롯한 『최문창후전집』 『매월당전집』 『퇴계집』 등 유수의 國故文獻을 편집 영인하여,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얻은 바 있다. 동아시아학술원은 이러한 학문적 전통을 계승하여, 현재까지 새로운 문헌을 발굴하고 정리하여 학계에 제공해 오고 있다. 이러한 영인 작업은 투여하는 열정과 노력은 지대한데

비하여 그 성과로서의 인정 여부는 미미하여 대부분의 대학 연구기관은 기피하는 추세이고, 한국고전번역원 등의 몇몇 국가 기관만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학술원이 고전 영인의 전통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은 한국학, 동아시아 학의 학문적 토대를 굳건하게 쌓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귀중한 문헌의 영인 출판에 이어, 이 텍스트를 지대한 시간을 투여해 강독, 해석하고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도 지속해 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05년에 영인 출간한 『沈大允全集』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전통의 유학자와 견해를 달리하며 福利를 중시한 19세기의 특출한 학자 심대운의 저작은 10년의 강독과 적공을 거쳐, 임형택 교수가 주도하고 이현일 교수, 손혜리 연구원 등이 참여한 익선재 강독회에서 『백운 심대운의 백운집』으로 완역 출간되었다(실시학사 실학번역총서 7, 사람의무늬, 2015).

고전 자료에 대한 학술원의 이러한 유서깊은 전통은 여러 분야로 확산되었는데, 특히 원자료를 가공하여 학술 연구에 보다 용이한 활용을 위해 자료집 형태로 출간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동아시아학술원 출범 이래 지난 20년 동안 간행한 자료집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강명관 · 고미숙 편, 『근대 계몽기 시가 자료집』(1~3), 2000.
- 김시업 편, 『정선의 아라리』, 2003.
- 김준형 편, 『경상도단성현 사회자료집』(1~3), 2003.
- 이희목 편, 『애국계몽기 한시자료집』, 2004.
- 이희목 · 한영규 · 김진균 외 편, 『식민지시기 한시자료집』, 2009
- 송재소 · 이철희 외 편, 『17·18세기 한문학 비평 자료집』, 2012.
- 안대회 · 이철희 · 이현일 편, 『조선후기 명칭문학 관련 자료집』(1~2), 2013.

이러한 자료집은 원자료의 오탈자를 검토해 바로 잡고, 통일된 형식으로 조리 있게 정리해야 하기에 오랜 시간과 끈질긴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으로, 학문적 사명감이 없다면 달성되기 어렵다. 이 가운데 『식민지시기 한시자료집』 『17·18세기 한문학 비평 자료집』 『조선후기 명칭문학 관련 자료집』(1~2) 등은 연구과제의 최종 결과물로서, 보다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정리 작업이 밀도있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자료집은 1978년 대동문화연구원이 출간한 『한국문집색인』(1~2)과 같은 자료학 전통을 이은

것으로, 자료의 2차적 가공을 통해 연구의 초석을 다지는 인문적 수련이라는 성격을 띠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막대한 노력으로 산출된 방대한 규모의 자료들이 해석과 비평을 거쳐 논문·저서 등의 학술적 언어로 표현되었는지의 문제는 고려해 볼 사안이다. 『식민지시기 한시자료집』의 경우, 신문잡지 등에 실린 한시 1만여 수를 조사하고 그 가운데 수천 여 수를 교감·정리한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 시기 한문맥의 복잡한 양상을 어느 만큼 해명했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자료집의 출간이 학술 연구를 위한 방편적 단계이지 최종적 목적이 아닐진대, 자료의 가공에 몰두하느라 정작 자료의 해석에는 소홀하지는 않았는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집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술원 차원에서 PDF 또는 DB로의 전면적 전환과 공개를 검토해 볼 수 있겠다. 그동안 축적해 온 학술원의 자료학 성과를 한 곳에 집결시킨다면, 각 자료 간의 상호텍스트성이 발휘되어 의외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진다.

학술원은 대동문화연구원의 자료학 축적의 역사를 동아시아학 측면에서 계승하고 확대하였다. 학술원이 새롭게 기획한 ‘동아시아 자료총서’는 2009년 첫 권을 출간한 이래, 비교적 단기간에 풍부한 성과를 거둔 시리즈 물이다. 『이탁오의 논어평』에서 시작하여, 2020년 현재 유사배의 『중국경학사』까지 총 21권의 자료를 번역 출판하였다. 명칭은 ‘자료총서’이지만 주로 동아시아 역대의 명저 자료를 번역한 것이 주종을 이루며, 특히 경학 관련 문헌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일본 한문학 연구동향』 1(2016)과 『판보이쩌우 자서전·자료편』(2016)은 동아시아 한문학의 외연을 확장시킨 번역물로서, 참신한 기획이라 평할 만하다.

『일본 한문학 연구동향』 1은 김용태·임상석·박이진·박영미 등 동아시아 근대 한문학에 관심을 둔 연구자들이 『일본한문학연구』에 수록된 글 가운데 대표적인 8편을 선별하여 번역하였다. 이 가운데 제6장과 7장의 스기시타 모토아키(杉下元明)의 「근대문학과 한문학」, 기무라 준(木村 淳)의 「근대기 일본의 한문교육」은 최근 새롭게 주목되는 한국의 근대한문학 연구와 관련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경대의 사이토 마레스가 설정한 ‘漢文脈’ 개념이 한국 연구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일본 한문학의 연구 동향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김용태·박이진 주도로 출간한 『판보이쩌우 자서전·자료편』 또한 매우 흥미로운 자료로서 동아시아 한문학 분야의 영역을 확장한 성과의 하나이다. 판보이쩌우(潘佩珠, 1866~1940)는 베트남의 독립지사로, 우리

에게 익숙한 『월남망국사』의 저자이다. 그는 한학자이자 독립운동가로 중국·일본을 오가며 외교와 집필 활동을 펼쳤는데, 그 외중에 한국의 조소앙과 대면하기도 하여, 한국의 근대지식인의 멘탈리티를 이해하는 데에도 참고가 될 인물이다. 한문으로 된 판보이쩌우의 이 자서전은 학술원의 동아시아 자료총서로 영인된 이후, 최근 한국 연구재단의 번역 과제로 선정되어 (2018~2019), 김용태·박이진의 역주를 통해 곧 출간될 예정이다. 판보이쩌우의 일생과 업적은 베트남 뿐 아니라 프랑스,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대만 등 여러 나라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연구되고 있는데, 동아시아학술원 주도로 그의 자서전이 한국 최초로 완역되어 소개된다면 동아시아 근대 지성사 연구에 상당한 반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전의 영인, 2차 가공을 통한 자료집의 출간과 함께 번역 작업은 고전 자료학의 핵심적인 측면이다. 특히 한문 고전을 오늘날의 일상언어로 번역하는 일은 한국 근대 학문의 발전 여부를 좌우하는 근본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학술원 산하 대동문화연구원은 1958년 창립 이래 한국의 국고문헌에 대한 번역을 추진해 오긴 했으나 그 성과는 고전 영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이는 대학 연구기관으로서 보다 긴급한 학술적 성과에 치중하느라, 번역 사업은 자연스레 부차화된 형편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학술원은 2007년에 대학원 학제로 한문고전번역 협동 과정을 설치하면서 고전 번역 인재의 양성과 실제의 번역 사업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2년, 대동문화연구원은 한국고전번역원이 주관하는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을 신청,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면서 고전 번역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尹懔(1741~1826)의 『無名子集』 16책, 金履安(1722~1791)의 『三山齋集』 4책, 金祖淳(1765~1832)의 『楓臯集』 2책, 朴珪壽(1807~1877)의 『환재집』 4책, 徐灋修(1749~1824)의 『明臯全集』 7책을 상세한 역주를 붙여 출간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2020년 현재는 金昌翁(1653~1722)의 『三淵集』과 李裕元(1814~1888)의 『嘉梧藁略』을 번역 중에 있다. 거점번역팀에서 이들 문집들을 학술적 주석을 붙여 번역한 연구자는 강민정, 이규필, 이승현, 장성덕, 이상아, 김채식, 이성민, 서한석 연구원 등이다. 이 가운데 일부 연구원은 학술적 번역 능력을 인정받아 경북대 한문학과 교수 등에 임용되기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학술원 산하 대동문화연구원의 거점번역팀의 지속적인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실제 전국 대학에서 거점연구소로서 한국 고전 번역을 수행하는 곳은 성균관대를 위시하여 2020년 현재 10개 대학이다. 다만, 이러한 번역 성과가 출판을 넘어 학술적 논의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는지는

짚어볼 사안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등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환경 변화는 오늘날의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의 하나이다. 학술원은 일찍부터 한국경학자료 시스템, 대구 및 단성 호적 DB를 구축하였고, 이를 ‘디지털동아시아학’이라 명명하면서 이 시대적 화두에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실 학술원이 구축한 DB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충분치 못한 듯하다. 단적인 예로 다른 대학이나 기관이 구축한 여타의 DB와 견주어 볼 필요가 있다. 한중연의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고려대의 「해외학국학자료센터」, 경상대의 「남명학문헌정보시스템」 등과 견주어, 이용자 통계 및 이용 빈도 또는 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해 볼 수 있겠다.

한국경학자료시스템을 위시한 학술원이 구축한 15종의 DB 가운데 고전문학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 지도」와 「연행록 DB」가 특히 주목된다.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 지도」는 진재교 교수가 주도하여 구축한 것으로, 17-19세기의 한중일 지식인 네트워크 DB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는 한문이라는 공유 언어로 인적·물적 관계망 속에서 학술과 문화를 교류하였고, 특히 17세기를 전후한 동아시아는 국제 질서의 전환과 함께 使行을 통해 상호 교섭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 교섭을 통해 생성된 지식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새로운 지식의 유통과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지식과 지식인의 상호 교류의 실상은 다양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7세기 이후 동아시아 각국은 출판문화의 활황과 서구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정밀히 검토하고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 지도」는 근대 이전의 지식과 지식인의 관계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DB이다. 이 DB는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한문기록에서 일국 내의 지식·정보가 생성·유통되는 양상을 주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그 실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지식 공유 및 지식의 전파, 유통, 굴절 등의 양상을 보다 용이하게 탐색할 수 있다.

「연행록 DB」는 동아시아학술원의 핵심 연구 과제인 연행록 연구 성과를 DB화한 것으로, 한중연의 한국학진흥사업의 지원을 받아 2012년 이래, 10년 간의 장기 과제로 그 구축이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다. 이 사업의 책임은 이희목(한문학과) 교수가 맡고 있으며, 이철희·최식·김영죽 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연행록 DB」는 지난 1962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연행록선집』 이후 『연행록선집 보유』 등 총 5차에 걸쳐 수집·간행된 430여 종의 연행록을 DB화 하는 방대한 장기 과제이다. 이 DB는 한문 원문 뿐 아니라 연관어, 분류색인 등의 시소러스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각 연행록의 서지정보와 연행사절과 관련된 특수한 정보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단계 연구(2012~2015)에서는 영정시대의 연행록 52종을, 2단계(2015~2018)에서는 19세기 연행록 82종을 DB화 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3단계(2018~2021) 사업에서는 정조이전 시대의 연행록 218종을 대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학술원의 이 「연행록 DB」 구축 사업은 방대한 연행록 자료의 전체적 파악을 가능하게 하여, 연행록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기여할 것이며, 동아시아의 상호인식과 교류 연구에 실증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기초 작업이라 하겠다.

한국 학계에서 연행록 연구는 1962년 대동문화연구원이 영인한 『연행록선집』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대동문화연구원의 영인본을 저본으로 하여 『국역 연행록선집』을 간행하였다. 그후 연행록 연구가 외부로 확산되어, 동국대 임기중 교수가 『연행록선집』(562종)을 편집 출간하였다. 이 전집은 현재 ‘연행록 총간 DB’라는 이름으로 민간 기업 KRpia(한국학 지식콘텐츠 플랫폼)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다. 즉 정부 출연 국역기관, 대학, 민간업체 등의 세 방향에서 경쟁적으로 연행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학술원의 「연행록 DB」 사업은 대학 연구기관을 대표하여, 한국학 기초자료를 가공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책임감 또한 막중하다 할 것이다. 현재 대학에서의 연행록 연구는 성균관대, 동국대, 한중연 등이 주도하고 있다. 한중연에서는 신익철 교수의 주도로 『연행사와 북경 천주당-연행록 소재 북경 천주당 기사집성』(보고사, 2013), 『18세기 연행록 기사 집성-서적, 회화편』(한중연, 2014) 등의 자료집을 출간하였다. 또한 개별 연행록의 역주에도 힘을 기울여 김직연의 『연사일록』(의왕향토사료관, 2011)과 이지지의 『일암연기』(한중연, 2016) 등을 국역 출판하였다. 또한 연행록의 국역은 한국고전번역원, 국립중앙도서관,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연행록 국역총서) 등의 공공기관이나 한중연 등의 대학, 개별 문화원 및 문중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연행록에 대한 관심은 한국, 중국, 일본 뿐 아니라 베트남에서까지 활발히 일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복단대가 영인 출간한 『越南燕行漢文 文獻集成』(2010) 이후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학술원의 「연행록 DB」 사업팀은 현재로서는 DB의 입력과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형편이다. 향후 이 DB를 바탕으로, 대표적 연행록의 번역 및 저술로 그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적으로 사업 과정의 성과를 출판으로 연계시킨 사례로, 김영죽 연구원의 『낭송 19세기 연행록』(북드라마, 2019)이 대표적이다.

학술원이 구축하는 15종의 DB들은 각각 팀을 나눠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거시적 차원에서 보자면 DB 상호 간의 링크도 고려함 직하다. 예컨대 18세기 실학자로서 연행 경험이 있는 홍대용·박지원·유득공·박제가 등에 관한 사항은 「연행록 DB」와 「조선후기 지식 지식인 지도」에 핵심적으로 수록되어 있을 터이지만, 「한국경학자료시스템」 「한국족보자료시스템」 「韓中 핵심인물 정보 DB」 「존경각 귀중본·희구본DB」 등에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즉 학술원이 구축 운용 중인 DB들을 연결시키는 일종의 메타DB를 구축하는 작업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우선 1차적으로 학술원 내부 차원에서 DB를 연결시키고, 향후에는 외부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도 시도해 볼 만하다. 즉 학술원 「연행록 DB」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와의 연동이나, 한중연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과 학술원의 「한국족보자료시스템」과의 링크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DB간의 연동과 통합은 동아시아학 빅데이터 구축으로 이어지고, 각 DB 간의 경쟁과 코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검색시스템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동아시아학술원은 향후 벌어질 각 DB 간의 검색 경쟁과 M&A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중요 DB를 구축하는 한편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위한 학문 방법론에 대한 진지한 모색도 병행되었다.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 지도」 DB 구축의 책임교수인 진재교는 「빅 데이터와 디지털 동아시아학의 가능성」(『대동문화연구』 98, 2017.6.)이라는 논문을 통해 디지털 자료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동아시아학을 새롭게 선도할 것인지를 탐색했다. 이 논문의 요지는 동아시아 역대의 방대한 지식 데이터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DB를 구축하고 이를 검색·분석·해석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함으로써, 기존의 개인 연구나 집단 연구로 포착할 수 없었던 새로운 양상이나 인문적 통찰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빅 데이터와 디지털의 만남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융복합 연구의 새로운 분야의 개척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인문학과 동아시아학의 창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韓國經學資料集成』을 DB화하여 ‘한국경학자료시스템’을 구축한 이영호·함영대는 「디지털 경전주석학의 모색」(『대동문화연구』 101, 2018.3.)이라는 논문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

여 경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했다. 동아시아학술원이 구축한 ‘한국경학자료 시스템’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시도된 바 없는 ‘주석별 검색’이라는 방식을 전산화 과정에 도입함으로써 경학자료를 활용한 연구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동아시아학술원은 지난 20여 년간 매년 평균 40억원의 연구과제를 수주하였다. 이는 국내 대학의 인문학 관련 학술기관 가운데 단연 1위의 실적에 해당한다.³⁾ 특히 BK, HK, WCU, 중점연구소, 캠퍼스 아시아 사업 등 대형의 국책 연구사업을 연속적으로 수주한 결과로, 이 연구비가 학술원의 성장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중형의 공동연구 과제의 수주도 타 대학에 압도적 우위를 점하였다. 「연행록 DB」 구축사업, 거점번역연구소 사업, 「아시아 각국과 한국의 문명교류사 연구 및 출판」(이희옥) 등을 연속적으로 수주하였다. 중대형 과제에 비해 개별 연구는 그 규모가 단소하지만, 지난 20년간 학술원 구성원이 각자의 연구 분야에서 고유의 주제를 다양하게 창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있는 연구였다고 평가된다.⁴⁾ 이렇게 학술원의 연구자들은 한국연구재단, 한국역사박물관 등으로부터 다종 다기한 연구과제를 수주하였다. 학술원 소속 및 겸직의 전임교수 뿐 아니라, 비전임 연구자로서 이철희, 손혜리 등이 연구자 학술원을 모체로 삼아 활발한 성과를 산출하고 있다. 이를 학술원 차원에서 통합하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종합할 필요가 있다.

3) 오시택, 「한국 대학의 변화와 동아시아학술원 20년의 성과」, 2020.11.14. 발표문.

4) 개별 연구과제 가운데 흥미로운 주제들을 일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기간	주관 기관
안대회	사료를 통해 본 18세기 서울 도시상 조사 용역	2015.07. ~ 2015.12.	서울역사박물관
이철희	19세기 초 주제시의 유행과 사의식의 동향	2012.05. ~ 2013.04.	한국연구재단
이철희	19세기 초 한중 문학 교류와 오승량	2012.05. ~ 2013.04.	한국연구재단
손혜리	조선후기 서얼가의 學知 생성 家學의 성립	2012.05. ~ 2013.04.	한국연구재단
손혜리	19세기 昌寧 成氏 가문의 연행체험과 기록에 대한 연구	2015.05. ~ 2016.04.	한국연구재단
정우택	인류무형유산 「아리랑」의 집성 및 세계적 DB 구축	2015.09. ~ 2016.08.	한국연구재단
박경남	왕세빈의 商人傳記와 조선후기 散文속 商人 形狀	2012.07. ~ 2013.06.	한국연구재단

Ⅲ. 『대동문화연구』 특집을 통한 학술 의제의 주도

『대동문화연구(The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는 1963년 8월에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2020년 11월 현재까지 한국학 및 동아시아학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술지로서 한국 인문학 발전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한국경제사를 전공한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는 일본 교토대학에서 공부하던 1970년대 초기 『대동문화연구』를 읽으면서 한국학계의 연구성과를 접하게 되었으며, 그때의 경험이 자신의 한국사 연구 역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술회한 바 있다. 그는 “나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일본의 연구자는 한국의 연구로부터 큰 자극을 받았는데, 그 매개가 된 것이 다름 아닌 『대동문화연구』 등의 학술 잡지였던 것이다.”⁵⁾ 이렇게 『대동문화연구』가 지닌 학문적 영향력은 국내 학계를 뛰어넘어 세계적 층위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의 『민족문화연구』, 연세대 국학연구원의 『동방학지』와 함께 한국 인문학계를 대표하는 인문종합 학술지로서 여전히 굳건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동아시아학술원은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새로운 학문적 의제를 기획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토론과 보완을 거쳐 그 최종적 성과를 『대동문화연구』에 기획특집 논문으로 게재하였다. 『대동문화연구』는 학술원이 출범한 2000년 3월의 제36집으로부터 현재의 111집까지 총 76차례에 걸쳐 논문집을 계간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는 연간 평균 49건이며 지난 20년간 『대동문화연구』에 게재된 총 논문수는 940건으로, 인문학 분야의 종합학술지 가운데 최정상 수준의 수준에 해당한다. 『대동문화연구』 편집의 주요 방침은 동아시아학술원 산하의 각 연구단위에서 개최된 다종다기의 학술회의 가운데 가장 정채로운 어젠더를 기획하고 이를 특집으로 구성해 출간한다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고전문학, 고전학 분야의 중요한 특집을 손꼽아 보면, 다음과 같다.

40집	2002.6.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현대
42집	2003.6.	21세기에 다시 읽는 실학
45집	2004.3.	해강 기학의 사상

5) 미야지마 히로시, 「밖으로부터의 시각과 안으로부터의 시각-『대동문화연구』 편집위원으로서」, 『대동문화연구원 50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433~435면.

51집	2005.9.	1910~1920년대초 한국에서 자국학 이념의 형성 과정
54집	2006.6.	근대문명과 산강 변영만
56집	2006.12.	여행기에 나타난 한국
90집	2015.6	한문세계의 중심과 주변
104집	2018.12.	고종시기 학술계와 영재 이견창

이러한 기획 가운데 2004년 3월 『대동문화연구』 45집에 실린 「惠岡 氣學의 사상」이라는 주제의 특집논문은 국내외 학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특집은 대동문화연구원이 최한기의 저술을 최대한 망라하여 영인한 『증보 명남루총서』(5책, 2003)의 출간을 기념해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惠岡 기학의 사상-동서의 학적 만남을 위한 신경지」(2003년 11월 21일)에서 발표된 것들이다. 이 국제학술회의에서 『증보 명남루총서』의 편집을 주관한 이우성 교수가 「혜강 최한기 연구의 경과와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제하의 기조발표를 맡았으며, 국내외 혜강 전공자 4인과 중국, 일본, 대만 등의 해외학자가 참여하여 혜강의 학문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이 국제학술회의의 성과로 『대동문화연구』 45집에 실린 논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임형택, 「정약용의 經學과 최한기의 氣學 -동서의 학적 만남의 두 길」
- 권오영(한중연), 「최한기 氣學의 사상사적 의미와 위상」
- 최영진 · 이행훈, 「최한기 運化論 생태학적 해석」
- 김용옥, 「測人에 나타난 혜강의 생각 -讀人政說」
- 龐萬里(중국 항공항천대), 「최한기 運化學의 ‘舍虛取實’ 실학사상」
- 김철양(일본 대판경제법과대), 「최한기 편수 『身機踐驗』의 편집방법과 그의 ‘氣」 사상」
- 장영당(대만 청화대), 「최한기의 운화기학」
- 川原秀城(일본 동경대), 「최한기 기학 체계내의 과학-혜강의 서학수용과 그 한계」

이 논문들은 1971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최한기의 모든 저작을 모아 5책으로 영인한 『명남루총서』의 출간 이래, 30여 년간 진행된 혜강 연구의 최종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동안 대동문화연구원은 혜강 최한기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두 차례의 영인본 출간, 학술회의 개최, 연구서 발간 등을 지속시켜 왔다. 혜강

최한기 연구를 선도한 이우성 교수는 대동문화연구원 주최의 2000년 동양학 국제학술회의에서 이견창이 쓴 최한기 傳을 발굴 소개하며 「해강 최한기의 사회적 처지와 서울 생활」(『동양학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4)이란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어 대동문화연구원 연구총서로 이현구의 『최한기의 기철학과 서양과학』(2000)을 발간하였으며, 『대동문화연구』 지면에 임형택의 「개항기 유교지식인의 「근대」 대응논리 -해강 최한기의 기학을 중심으로」(37집, 2000.12.), 박희병, 「최한기 사상에 있어서 자연과 인위의 관계」(42집, 2003.6.)를 출간하였다. 박희병 교수는 이 논문을 확장하여 저서 『문화와 근대-최한기 사상에 대한 음미』(돌베개, 2003)를 펴냈다. 이러한 학술원 안팎의 최한기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대외 연구과제의 수주로도 이어졌다. 문중양 등의 최한기 연구팀이 학술진흥재단에 공동연구 과제를 신청해 선정되었다. 이 공동 연구의 결과는 즉시 『대동문화연구』 43집(2003.9.)에 발표되었다. 즉 문중양의 「최한기의 이론적 서양과학 읽기와 기류설」, 정환국의 「19세기 文論史에서의 최한기의 문장론」, 이현구의 「최한기 사상의 인식론적 의의」 등의 논문이 그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학술원은 최한기 연구의 실질적 국내 거점 연구기관으로 널리 공인 받게 되었고, 철학 및 과학사 분야의 최한기 관련 논문이 『대동문화연구』에 연속적으로 게재되었다. 그 가운데 백민정의 「최한기 정치론에서 民의 위상에 관한 문제」(67집, 2009.9.)와 「주자학적 독법에서 본 최한기 철학의 특징」(102집, 2018.6.), 전용훈의 「최한기의 기학과 서양 근대천문학」(105집, 2019.3.) 같은 논문이 주목할 만하다.

『증보 명남루전집』은 기존 영인본에 신발굴 자료를 덧붙여 해강의 저술 및 편찬물을 총집성한 것으로, 특히 최한기의 문집 초고 『素謨』 등 후손들이 소장해 오던 새 자료를 활자로 다시 정리하여, 최한기 저술의 결정판에 해당하는 전집을 구성했던 것이다. 즉 1971년에 대동문화연구원이 펴낸 『명남루총서』 5책과 여강출판사가 1985에 영인한 『명남루전집』 3책을 종합하고, 여기에 6종의 새자료를 보완하였다. 새자료 6종으로 일본 京都大 소장본으로 역대 農書를 발췌 편집해 놓은 『農政會要』(사본 10권,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던 『素謨』(사본 1책), 『鄉隣抽人』(사본 1책), 『惠岡雜藁』(사본 1책), 『承順事務』(사본 1책)과 해강의 아들이 남겨 놓은 일기·가계부인 『崔柄大亂筆隨錄』 등이 수록되었다.

최한기의 문집 『명남루총서』는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되지 않아 한국고전학의 가장 필수적인 공공 데이터인 ‘한국고전종합DB’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외 학자가 최한기 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동문화연구원이 영인한 『명남루총서』와 『증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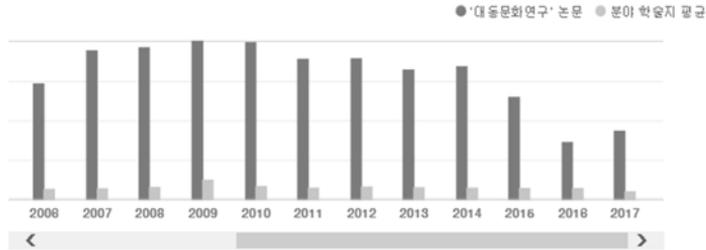
남루총서』를 참고해야만 한다. 학술원이 연행록 DB화 등의 경험을 살려, 『증보 명남루총서』를 비롯한 최한기 자료 전체를 DB화 하는 사업도 계획해 볼 수 있다. 최한기는 여전히 한국 인문학계의 뜨거운 연구주제이고, 최근에서는 과학사, 의학사 등의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⁶⁾ 또한 최근 재단법인 실시학사의 기획으로 권오영·백민정·전용훈 등의 연구자 참여한 연구서 『해강 최한기 연구』(사람의 무늬, 2017)이 발간되기도 했다.

요컨대 최한기 연구는 1971년의 『명남루총서』 영인 이래, 대동문화연구원과 동아시아학술원이 학문적 이니셔티브를 주도해 온 핵심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우성-임형택-박희병-문중양-이현구-정환국-백민정 등으로 이어지는 연구 주체의 포진이 대동문화연구원과 동아시아학술원을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고, 또한 그 학술적 성과 또한 학술지 『대동문화연구』를 플랫폼으로 하여 축적되었다. 특히 최한기 사상의 동서 회통적 측면은 동아시아학술원이 지향하는 바의 융복합 연구에 매우 적합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간의 해강 연구를 성찰하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앞의 연구성과를 계승, 도약시킬 방안이 모색될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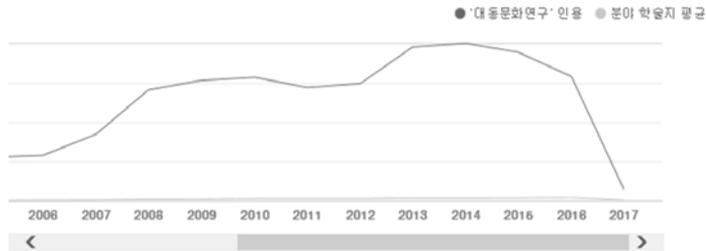
『대동문화연구』가 지난 60년 동안 총 111집을 출간하며 한국학 및 동아시아학 분야에서 학술적 의제를 주도적으로 발신하며 큰 업적을 쌓아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거시적으로 조망할 때 연구 역량의 확대나 지속적 성장 동력 면에서 일정한 정체 현상을 보인다는 점도 묵과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KRI가 제공하는 학술통계가 그러한 징후를 보여주기도 한다.

6) 최한기의 과학 사상에 대한 논의로 전용훈의 논문(「19세기 조선지식인의 서양과학 읽기-최한기의 기학과 서양과학」, 『역사비평』 81, 역사비평사, 2007)이 참조된다. 또한 의학사의 시각에서 최한기를 분석한 최근의 글로 조성산의 논문(「최한기의 神氣 논의와 中西 의학 비판-花潭學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의사학』 62, 대한의사학회, 2019.8.)이 주목된다.

‘대동문화연구’ 논문 발행 현황



‘대동문화연구’ 피인용횟수 추이



지난 10여 년간 『대동문화연구』에 실린 논문 발행 추이를 살펴보면 위의 그래프에 보듯 2009~2010년에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하고, 그 이후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피인용 횟수는 그로부터 3~4년 후인 2013~2014년에 정점을 찍고 역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물론 이 도표는 논문의 내용이나 질적 수준과는 무관하고 단순한 산술 통계를 보여줄 뿐이다. 다만, 이러한 단순 통계가 지시하는 어떤 경향성을 파악해 보는 것은 일정정도 의미를 지닌다.

IV. 學際間 시각을 갖춘 공동 학술저서의 출간

동아시아학술원은 고전학 자료의 영인, 자료집 정리, 번역서 출간 등의 기초 토대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기획 학술회의를 통해 학계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학술저서의 형태로 출간하였다. 동아시아학술원이

출간한 학술저서는 그 출발 단계에서부터 현재적 의미를 띠는 새로운 학술 의제를 기획하고, 거기에 분야별 전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융합적이며 學際的 연구를 유도하였던 바,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공동저술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학술저서를 연속된 시리즈물로 구성하여, 동아시아학술원총서, 동아시아 자료총서, 동아시아문명총서, 동아시아 교양총서 등으로 현재까지 왕성하게 출간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기획 시리즈는 그 기초에서 대동문화연구원이 지난 60년간 추진해온 ‘대동문화연구원 연구총서’ 출간과 유사하면서도, 개인 연구저서를 지양하고 보다 동아시아적 시야에서 학제적·융합적 방법으로 이룩한 공동 연구의 성과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보다 새로운 기획물이라고 평가된다.

동아시아학술원이 학제간 공동 연구를 지향하며 새롭게 기획한 학술 의제 가운데 특히 동아시아 서사학 관련 연구야말로 한국 학계에 참신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주제는 본래 학술원이 출범한 직후인 2001년 10월에 임형택 등이 기획한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로부터 시작되었다. 소설 및 서사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동아시아 차원에서 당시까지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중국 소설 연구에서 세계적 수준 연구를 진행 중인 캐나다 학자 앤드류 플렉스(Andrew Plaks) 등 다수의 외국학자를 초빙하여 동아시아 소설 및 서사학에 대해 집중적인 학술 발표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회의의 성과는 이듬해 간행된 『대동문화연구』 4집(2002.6.)에 발표되었다. 동아시아학술원은 이 내용을 기반으로 보다 내용을 보완하고 다듬은 다음 전문 학술서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성균관대출판부, 2005)로 출판하였다. 이 책은 표제대로 동아시아 즉 한자문명권에서의 이야기, 志怪, 傳奇, 소설 등 서사에 관한 다양한 범주와 역사를 서구 서사학에 견주어 검토하였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과 서쪽에서 이루어진 문명이 서로 판연히 달랐듯, 서사 및 서사학의 전통에서 동서의 차이는 현저한 것이 사실이다. 19세기를 ‘소설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다분히 서구적 사정을 중시한 매우 편향된 설명일 뿐이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즉 한자문명권에서는 아주 먼 옛날부터 傳奇 등 여러 갈래의 서사물들이 출현하였고, 각 장르에 따라 나름대로 변화해 왔다. 동아시아의 서사물은 풍부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다. ‘소설의 시대’를 거론한다면 중국의 경우 15세기에 그 시대에 벌써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도 소설의 대중적 유행은 19세기 이전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즉 ‘소설’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서구 문학사의 규정을 지나치게 일반화해 온 것에

대해 성찰하고, 그 문제의식에서 동아시아 서사물의 역사적 존재상을 다시 짚어보자는 의도를 지녔다. 실제로 동아시아 각국은 근대에 들어서며 서사의 정신 및 연구의 방법론이 서구의 근대 서사를 대폭 수용했고, 그에 따라 전통서사를 서구적 기준에 따라 변형시켜온 공통의 이력을 지녔다. 이 심각한 사안을 보다 전환적인 시각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 기획이었다. 그 최종적 결과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동아시아 서사의 비교론을 다룬 제1부에는 임형택의 「동아시아 서사학 시론」, 앤드류 플랙스(Andrew Plaks)의 「중국 고전소설에서 자아의 유교적 개념」, 최원식의 「서구 근대소설 대 동아시아 서사」, 박희병의 「한국·중국·베트남 전기소설 비교연구」 등이 실렸다. 전통 시기 서사를 분석한 제2부에서는 후지이 사다카즈(藤井貞和)의 「일본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 스창위(石昌渝)의 「춘추 필법과 ‘홍루몽’의 서사방략」, 왕핑의 「중국소설 평점가의 서 사이론」, 정출현의 「초기 한문소설의 서사적 특징과 미적 구현 양상」, 진재교의 「한국 한문서사양식의 층위와 변모」와 같은 논문이 연이었다. 근대 시기의 서사를 탐구한 제3부에는 천평위안(陳平原)의 「중국소설의 근대적 전환」, 김영민의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 과정」, 박현호의 「한국 근대소설사에서 단편양식의 주류성 문제」,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의 ‘마음’을 생성시키는 심장, Heart」 등이 실렸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동아시아의 전통적 서사물이 서구와는 다른 역사 배경에서 동아시아 고유의 독자성을 지니며 발전해 온 역사와 그 전통이 서세동점의 근대적 상황에서 서사 개념에 일정한 굴절과 변형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었다.

동아시아학술원의 고전학 연구가 추구해 온 의미있는 방법론 중의 하나는 고전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통해, 현재적 의미에서 새로운 가치와 성찰적 지평을 제시하려는 인문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2016년 대동문화연구원총서 28집으로 출간한 공동 학술연구의 결과물 『19세기 한 실학자의 발견-사상사의 이단아, 백운 심대운』은 우리시대 동아시아 고전학 연구의 한 전범이라 평가된다. 이 학술저서는 2005년 동아시아학술원이 발굴 영인한 『沈大允全集』(3책)이라는 고전텍스트를 강독·번역하고 논문 발표와 학술회의를 통한 상호 토론을 거치며, 10여년 이상의 적공을 지나 연구 성과를 총집성했다는 점에서, 학술원의 연구 자세와 그 역량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백운 심대운은 역모 사건에 연루된 폐족의 후예로 태어나 士族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일반 민의 처지로 삶을 영위한 독특한 이력의 학자였다. 그는 18세기 이래

상공업의 중심지였던 경기도 안성에서 거주하며, 이곳에서 오직 생계를 위해 밥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수공업자로 종사하기도 하고, 약국을 운영하며 인간의 욕망과 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학문을 확장시켜 경학 저술을 비롯하여 120권이 넘는 업적과 독특한 사상체계를 세운 19세기의 이색 실학자다. 이러한 삶의 역정과 학적 성과는 당대의 일반적 학문 풍토에 견주어 보면 거의 이단에 가까웠다. 그의 글은 전통적 문인과 달리 논리는 거칠고 주장은 과격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체득한 경험을 경학 저술과 역사 인식에 접목시키는 방식은 선명하고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스스로 「治木盤記」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자는 궁하면 비천한 일을 행할 수 있거니와 의롭지 않은 일을 행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는 재물이 없으니 장사를 할 수도 없고, 토지가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 나무 소반을 만드는 것은 천한 일이긴 하지만 실내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남에게 관여되는 바 없으며, 농사일이나 장사치처럼 피약벌에서 땀을 흘리거나 장터에서 분주히 이익을 노리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낫지 않느냐? …… 사물의 귀천은 일정하지 않아 때에 따라 귀할 때는 귀하게 되고 천할 때는 천하게 되는 법이다. 선비[士]는 옛날엔 귀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천하게 되었으니, 匠人도 지금엔 천하게 여겨지지만 후세에 귀하게 되지 않을 줄 어찌 알겠는가? 선비와 장인은 모두 지금 천하게 여겨지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겸하고 있다. 사물은 천함이 극에 다다르면 도리어 귀하게 되는 법이라, 어찌 애달파하리오?

심대운은 몰락한 지식인 처지에서 생계를 위해 나무 소반을 만들며, 인간의 본연적 욕망을 긍정하고 백성의 福利 증진 방책에 몰두했다. 그가 『福利全書』라는 별도의 저서를 남긴 것도 이러한 사유에 근거하였다.

『19세기 한 실학자의 발견-사상사의 이단아, 백운 심대운』은 심대운의 학문을 크게 사상·경학·문학의 세 부분으로 나눠 모두 9명의 연구자가 집필을 분담했다. 제1부 사상 편에서는 이 연구를 주도한 임형택 교수가 「심대운의 공리주의적 사상과 경세론」이라는 총론을 제시했고, 이어 김문용의 「심대운의 복리사상과 유학의 세속화」와 백민정의 「심대운 公利論의 특징과 시대적 의미」를 통해 백운의 福利와 公利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조망했다. 제2부 경학 편에서는 심대운 사유의 反朱子의이며 실학적 성향에 대해 진재교가 「심대운의 詩經 해석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그의 시경론을

‘二南’과 ‘關雎’편을 중심으로 고찰했으며, 장병한은 「심대운의 「周禮刪正」과 王道論에 관한 연구」에서 심대운에서 王權·法義의 강화와 民利·國富의 제창 문제를 탐구했다. 또한 함영대는 「백운 심대운의 학자적 자의식과 경전해석의 일 국면」을 통해 그의 『논어』 해석을 상세히 해명해 보고자 했다. 제3부 문학 편에서는 3명의 젊은 연구자가 새로운 시각에서 논의에 참여하여 송혁기는 심대운 산문의 의론성에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손혜리는 심대운의 「南征錄」에 주목하고 김하라는 백운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하는 지식인의 자기정체성을 탐구하였다. 긴 호흡으로 고전 문헌을 면밀히 해석해 가는 진정성 있는 연구자세를 통해, 학술원의 학문적 토대가 한층 깊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난한 연구가 외부기관의 재정적 도움이 없이, 거의 자발적인 공동 연구를 통해 추진되었다는 점도 특기되어야 한다. 즉 연구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흥미와 학적 사명감이라는 내적 동기에 의해 연구가 지속된 것이었다. 특히 자료 영인, 번역, 심화 연구 등의 전체 과정이 동아시아학술원과 대동문화연구원이라는 연구 공간을 플랫폼으로 삼아 진행되었다는 점도 큰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된다.

동아시아 서사학, 실학, 연행록, 동아시아 지식의 계보와 상호소통 등에 대한 집중 연구와 더불어 최근에는 동아시아의 개별 고전에 대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고전학을 구축하는 연구가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다. 안대회 대동문화연구원장은 2017년 12월 『대동문화연구』 100호 출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를 기획하며 ‘동아시아 고전학’의 재구성을 연구 의제로 제안하였다. 그 결과 학술회의 성과를 종합하여 그 이듬해 『고전학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공동 연구 저서를 대동문화연구총서로 공간하였다. 이러한 기획을 입안하고 주도한 안대회 원장은 그 기획의 의도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동아시아학술원 산하의 대동문화연구원이 60주년을 맞아 이제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큰 주제는 고전학이다. 우리의 고전을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으로 연구하는 양상을 지양하고, 우리의 고전이 한국의 고전뿐만이 아닌 동아시아의 고전, 세계인의 고전, 인류의 고전으로까지 뻗어나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게 큰 줄기이다. 한국인의 시각으로 한국인의 입장에서 인류의 고전으로 만든다는 게 중요한 일이다.” 또한 현재의 처지에서 효과적으로 고전학을 추구하자면 한국 고전에 대한 正典化와 定本化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학술적 실천으로 시도된 것이 바로 『정보 북학의』 『정보 택리지』라고 할 수 있다.

공동 연구저서 『고전학의 새로운 모색』에는 기획 학술회에서 발표된 논문 이외에

도 서양 고전학, 동아시아 자료학 등 넓은 의미의 고전학과 관련된 다양한 논문이 망라되어, 현단계 고전 문헌 연구가 도달한 성과를 여실하게 드러내었다. 이 연구서는 크게 서론 격의 개념과 전망, 방법론, 고전 자료 해석의 실제 사례로 구성되었다. 우선, 고전학에 대한 서론으로 이 어젠더를 제시하고 논의를 입안한 안대회 대동문화연구원장의 「한국 고전학의 방향」이 권두에 실렸으며, 이어 서양 고전학과 관련하여 안재원의 「르네상스는 돌고 돈다! *renascentia semper rotata!*」, 그리고 고전을 도상과 연관지어 연구한 대만의 학자 衣若芬의 「文圖學-동양 고전학 연구의 새로운 시각」이 실렸다. 제2부 고전학의 방법론에 대한 탐색으로는 노명호의 「고려시대 새로운 영역의 연구에서 사료와 개념체계의 관계」, 김경호의 「동일한 史實, 상이한 記錄」, 권기중의 「조선후기 호적 연구의 현재와 향후 과제」, 이영호·함영대의 「디지털 경전 주석학의 모색」 등에서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이어 고전학 관련 자료를 새롭고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한 사례들로 7인의 연구가 소개되었다. 즉 권순희의 「18세기 가집 편찬과 무명씨」, 정우봉의 「신자료를 통해 본 18세기 白頭山 여행과 그 의미」, 이창숙의 「조선 漢文劇本의 筆寫體制와 장르 특성」, 정민의 「茶山 『備禦考』의 행방」, 진재교의 「조선조 후기 類書와 人物志의 學的 시야」, 박철상의 「조선시대 金石文 자료의 정리에 대하여」, 백민정의 「주자학적 독법에서 본 최한기 철학의 특징」 등 참신한 자료를 오늘날의 시각에서 해석한 논문들이 다수 실렸다. 고전 문헌이라는 다양한 대상을 고전학이란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한 이 연구서의 출간은 대동문화연구원과 동아시아학술원의 미래를 위한 기초가 되고, 나아가 21세기 인문학 연구에서 한국 및 동아시아 고전학이 더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드러내는 학문으로 나아가는 데 일정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전학 연구의 토대를 이루는 문헌학에 대한 탐구도 계속 심화되는 단계이다. 학술원 산하 대동문화연구원은 2020년 11월 14일부터 2일간 「동아시아 문헌학의 신지평-資料와 環流, 書目과 收藏」이라는 국제학술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동아시아학술원 소속 연구자가 출간한 각종의 저서는 그 학술적 가치를 높이 인정받아 문체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한민국 학술원 등의 유력 기관이 선정하는 우수도서에 해마다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안대회의 『詩評補遺-못다 한 조선의 시 이야기』(성균관대출판부, 2019), 조창록·이성민·김채식·이상아 등이 번역한 『석견루시초』(이복현 저, 성균관대출판부, 2019), 김영진·신로사 등이 일본저서를

우리말로 번역한 『조선연행사와 조선통신사』(후마 스스무 저, 성균관대출판부, 2019) 등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도서로 연이어 선정되었다. 이 수상도서들은 모두 동아시아의 이름난 고전을 정밀하게 번역하고 해설한 것들로, 정확한 번역과 번다한 주석을 위해 오랜 기간의 집중력이 필요한 고된 연구작업의 결과물이다. 학술적 번역에 대한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자의 높은 역량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또 공동연구의 저서로 미야지마 히로시, 안대회, 한영규 등이 재단법인 실시학사의 위촉을 받아 집필한 『조정 박제가 연구』 실학연구총서 7, 사람의무늬, 2013)는 문화관광부의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특히 이 저서에서 학술원의 미야지마 히로시는 교수의 박제가의 사상사적 위상을 두고 ‘際를 자각한 자의 고민’이라는 특유의 해석을 시도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연이어 동아시아학술원의 임형택·진재교가 기획하여 성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며 거둔 성과물인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성균관대출판부, 2005), 소설 전공자 정환국이 세밀하게 번역한 『교감역주 천예록』(성균관대출판부, 2007)이 대한민국 학술원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또한 대동문화연구원의 연구총서 시리즈들도 출간과 동시에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즉 김시업, 『정선의 아라리』(2003), 이민홍의 『한국 민족예악과 시가문학』(2002), 김학성의 『한국 고전 시가의 정체성』(2002)이 문화관광부 추천의 우수학술도서로 연속해서 선정되었다. 강명관·고미숙 두 연구자가 근대 신문잡지에서 시가 관련 자료를 수습해 오랜 시일을 투여해 정리한 역작 『근대 계몽기 시가 자료집』(3책, 2001) 역시 그 노고가 인정되어 문화관광부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또한 동아시아학술원 소속 연구자들 간행한 대중적 글쓰기의 결과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안대회·이현일의 『한국 산문선』, 진재교의 『알아주지 않은 삶』, 김용태의 『해외문견록』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문학 저서의 대중적 출판은 한국 대학의 일반적 현실에 비추어, 매우 선도적이고 진취적인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술원의 고전학 분야 연구자들이 대학 제도 내에서 학술 연구와 더불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V. 맺음말

동아시아학술원은 지난 20년 동안 고전학 분야에서 자료의 영인, 학술회의 기획, 논문 발표, 공동 학술저서 출판 등의 면에서 한국 학계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학술원은 『증보 명남루총서』 『심대운전집』 『근기실학연원제현집』 『다산학단문헌집성』 『이건창전집』 등 다른 연구기관이 주목하지 못했던 한국학 연구의 중요 고전을 영인 출판하는데 특별한 사명감을 가져 왔고, 이 문헌들에 대한 심화된 연구 성과를 오랜 시간을 들여 축적하였다. 그리하여 근기실학, 다산학단, 최한기, 심대운, 이건창 등 한국 고전학 연구를 주도하는 핵심 연구거점으로서 학문적 정체성을 변함없이 지켜왔다. 이는 한국 고전을 연구하는 타 대학에 견주었을 때, 동아시아 학술원과 대동문화연구원이 뚜렷한 특색을 보인 분야이다. 동아시아학술원이 지난 20년 동안 고전학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임형택, 김시업, 신승운, 진재교, 안대회, 김영진 등 문헌과 고전에 밝은 연구자들이 리더십과 협업을 발휘한 결과였다. 한기형 전 동아시아학술원장 역시 지난 2018년의 원장 취임사에서 “오랫동안 축적해온 고전학의 전통을 굳건히 하면서 현재의 과제도 깊이 있게 탐색하는 학술기관이 되겠다. 우리 대학이 온축해온 한국학의 오랜 전통을 세계로 확산하는 일에 주력하겠다.”⁷⁾는 기초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체 기초 아래 학술원 구성원의 합심의 결과는 영인, 자료집, 연구저서 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 조건에 부응하는 DB 구축, 고전학 연구 대상의 다각적 모색 등으로 확장되었다.

학술원이 출범한지 20년이 경과한 현재의 시점에서 여러 가지 현안을 점진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의미있다고 여겨진다. 우선, 학술원이 변화되는 시대 현실에 맞춰 고전학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타 대학과 견주어 어떠한 특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고전학 분야에서 연구주체의 지속이라는 점에서 후속 세대의 육성과 참여를 보다 발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끝으로 학술원의 고전학 연구를 확장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협업과 연대의 확산 또한 고려할 문제이다. 한국 고전학에 중심을 두면서도 중국 고전학, 일본 고전학에 대한 연구자와의 연대가 보다 굳건해질 때 동아시아 고전학의 내실이

7) 한기형, 「동아시아학술원 원장 취임사」,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홈페이지, 2020년 8월 30일 검색.

동아시아학술원 20년의 고전학 연구 성과

보다 강화될 것이다.

투고일: 2020.11.10

심사일: 2020.12.07

게재확정일: 2020.12.08

참고문헌

- 대동문화연구원 편, 『대동문화연구원사 자료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7
- 박희병, 『문화와 근대-최한기 사상에 대한 음미』, 돌베개, 2003
- _____, 『통합인문학을 위하여』, 돌베개, 2020
- 이우성, 『『증보 명남루총서』 해제(補)』, 『고양만록』, 경인문화사, 2005
- 김경호, 「역사 ‘資料’로 읽는 동아시아학 연구 20년-戶籍과 簡牘 자료를 중심으로」, 동아시아학술원 20년사 집필 발표회 요지집, 2020.10.16
- 오시택, 「한국 대학의 변화와 동아시아학술원 20년의 성과」, 동아시아학술원 20년사 집필 발표회 요지집, 2020.10.16
- 이영호, 「동아시아학술원 20년 철학 방면 성과」, 동아시아학술원 20년사 집필 발표회 요지집, 2020.10.16
- 이영호 · 한영규, 「출간사업의 성과와 의미」, 『대동문화연구원 50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 이우성 외, 「역대 원장님과의 좌담회」, 『대동문화연구원 50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 이혜령, 「동아시아-식민지-근대성이라는 역사철학 테제-동아시아학술원의 근대 매체, 근대어, 검열 연구를 되돌아보며」, 동아시아학술원 20년사 집필 발표회 요지집, 2020.10.16
- 임경석, 「대동문화연구원의 학술사적 위치」, 『대동문화연구원 50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 진재교, 「동아시아학으로의 연구지평 확대와 연구방법론의 창신」, 『대동문화연구원 50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 _____, 「동아시아학술원의 연구 · 교육의 통합 모델과 그 성과」, 동아시아학술원 20년사 집필 발표회 요지집, 2020.10.16
- 한기형, 「동아시아적 시각에 의한 한국학의 재정립」, 『대동문화연구원 50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20 Years of Classical Studies at SKKU's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Han, Young-gyu

In March 2000, the establishment and launch of Sungkyunkwan University's East Asian Studies Institute was a meaningful 'event'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universities. It is assessed to be true in two respects. First, it broke down the old barriers of the Korean university system, which has been fixed by sub-disciplinary studies, and proposed a new agenda for East Asia. Second, it was because it sought a new system to combine education and research. Among the achievements of the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this article comprehensively reviewed materials, academic papers, and academic books focusing on the field of East Asian Classical Literature. In this process, I tried to refrain from evaluating research achievements and describe them chronologically. The research achievements made by the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are certainly noteworthy. This is the result of the researchers' efforts. However, rather than being carried out under a consistent and systematic plan, the efforts of individual research subjects were generally gathered.

Key Words : SKKU,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East Asian studies, Korean studies, Classical East Asian Studies, 『The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